

## FTA와 말(馬)산업 육성과제

이 영 수\*  
권 순 국\*\*

- 
- I. 서 론
  - II. FTA와 축산업
  - III.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
  - IV.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V. 결 론
- 

주제어 : 자유무역협정, 말산업, 말산업육성법, 말산업특구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

---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주저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교신저자

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FTA 체결이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 대상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고관세와 내부적으로 가격지지 등 높은 국내 보조로 축산업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로서는 FTA 대상국의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일정 부문 잠식하여 국내 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산업 중 하나인 축산업의 신(新)성장산업으로 말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9일 ‘말산업육성법’<sup>1)</sup>을 제정하였다.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은 말도 소와 돼지처럼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말<sup>2)</sup>이라는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의 통과는 전(全)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는 말산업은 경제적으로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서 정부의 말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말산업 육성을 정부가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既)체결된 FTA 중 시장규모가 큰 한·EU, 한·미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발표한 각종 법령, 단행본, 논문,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서, 관련 통계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1) 동법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총 6장 31조로 제1장 총칙, 제2장 말산업육성기반 조성, 제3장 말산업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말의 탄생과 인류와의 만남, 시대별·지역별 말의 역사와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종언 외, “새로운 문화 콘텐츠, 말-떠오르는 레저문화산업-”, 「RDA Interrobang」, 제37호, 농촌진흥청, 2011, pp.1-7.; Kelekna, P., *The Horse in Hum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 2. 선행연구

말산업에 대해서는 소, 돼지 등의 다른 축산분야에 비해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래에 말산업육성법의 제정과 말산업육성종합계획 등이 정부중심으로 수립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말산업에 대한 연구는 지역자치단체별로 말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지역 연구단체들이 말산업이 자가지역에 맞는 산업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강민수(2011, 2012)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 - 말산업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
채성주(2012) (충북발전연구원)	- 충청북도의 말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제시
강태훈(2009) (대구경북연구원)	- 경상북도의 말산업 현황과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의 타당성 분석
김종민 외(2011) (강원발전연구원)	- 강원도의 말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
이종언 외(2011) (농촌진흥청)	-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의 말산업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김재경·김한호 (2011)	-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김문영 (2006, 2011)	- 한·미 FTA 대비 경마산업을 통한 농촌지원 정책방향을 연구 - 기존 축산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의 타당성에 대해 제시
안중호(2011a, b)	-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이러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FTA 체결로 피해산업이 된 축산업의 신성장산업인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II. FTA와 축산업

### 1. FTA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FTA 체결이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 대상국이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높은 관세와 국내보조로 축산업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로서는 FTA 대상국의 축산물이 국내시장을 일정 부문 잠식하여 국내 축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既)체결한 FTA 중 EU, 미국과의 FTA가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EU FTA 축산물 양허

한·EU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고, 반면 EU는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하기로 하였다. 주요 축산물의 양허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한·EU FTA 축산물 양허 내용

품 목	협 상 결 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li>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li> <li>-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9,900톤(1년차)→13,062톤(16년차, 매년 2% 증량)</li> <li>-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6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7~11년차) 실행세율의 75%→(12~16년차) 실행세율의 60%</li> <li>▶ 육유(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 삼겹살(25%) : 10년 철폐</li> <li>▶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갈비·목살 등](22.5%) : 10년 철폐, 11년간 세이프가드 적용</li> <li>▶ 기타 냉동육 및 기타 냉장육 : 5년 철폐</li> </ul>

품 목	협 상 결 과
돼지 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동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 갈비·목살(25%)</li> <li>* 냉장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살, 어깨살(22.5%)</li> <li>▶ 냉동 족(18%), 돼지고기 밀폐가공품(30%) : 6년</li> <li>▶ 식용설육(18~30%), 소시지(30%), 기타 돼지고기 가공품(27~30%) : 5년 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2개 세번 : 13년 철폐</li> <li>* 냉동 가슴살 및 날개(20%)</li> <li>▶ 냉장육(18%), 냉동[다리(20~22.5%) : 10년 철폐</li> <li>▶ 삼계탕(30%) : 10년 철폐</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41.6%), 전란액(27%) : 15년 철폐</li> <li>▶ 난황(27%) : 13년 철폐</li> <li>▶ 종란(27%) : 10년 철폐</li> </ul>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3년 철폐</li> <li>▶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li> <li>▶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li> <li>▶ 녹용·녹각(20%) : 15년 철폐</li> </ul>

자료: 외교통상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p.19.

이러한 양허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에 가장 피해가 큰 부문은 축산부문이다. 구체적으로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며, EU로부터 수입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격경쟁력에서도 미국과 호주가 EU에 비해 높으며, 품질면에서도 EU산이 경쟁국에 뒤진다. 그러나 EU는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있어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실적도 좋아 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sup>3)</sup> 모형을 이용하여 축산부문의 파급영향은 물론 이로 인한 농업부문 전체(곡물류, 채소류, 과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하여 한우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4)</sup>

3) 농업부문 중장기 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한 모형으로 재배업 40개, 축산업 5개 등 총 45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 2) 한·미국 FTA 축산물 양허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국내 영향이 없거나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여 양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축산물의 양허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한·미 FTA 축산물 양허 내용

품 목	협 상 결 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6개 세번(40%) : 15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li> </ul> </li> <li>-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270천톤(1년차)→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 증량)</li> <li>-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6~10년차) 실행세율의 75%→(11~15년차) 실행세율의 60%</li> <li>▶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72%) 등 : 15년 철폐</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한 2개 세 번(22.5%) : 10년 철폐, 동 기간 중 세이프가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이프가드 발동물량 : 8,250톤(1년차)→13,938톤(10년차, 6% 증량)</li> <li>- 세이프가드 발동세율 : (1~5년차까지) 실행세율을 적용→(6~10년차) 실행세율의 70%에서 50%까지 인하(매년 5%씩 감축)</li> </ul> </li> <li>▶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22.5%), 식용 설육(18~30%), 돼지고기 가공품(27~30%) : 2014.1. 1 철폐</li> <li>▶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살, 갈비살 등](25%) : 2016.1. 1 철폐</li> <li>▶ 소시지(18%) : 5년 철폐</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닭(18~20%), 냉동[가슴살, 날개](20%) : 12년 철폐</li> <li>▶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철폐</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란(41.6%/TQR 30%), 전란액(27%) : 15년 철폐</li> <li>▶ 난황(27%) : 12년 철폐</li> </ul>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9개 연구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10, pp.34-36. 이들 9개 연구기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보건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하였다.

품 목	협 상 결 과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란(27%) : 10년 철폐</li> <li>▶ 난백(8%) : 5년 철폐</li> </ul>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고기(18~22.5%) : 냉장육 10년 철폐, 냉동육 12년 철폐</li> <li>▶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철폐</li> <li>▶ 칠면조고기(18%) : 7년 철폐</li> <li>▶ 녹용·녹각(20%) : 15년 철폐</li> </ul>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p.19.

이러한 양허 내용을 바탕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축산물 대미수입이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의 현행 관세율은 40% 수준으로 높고 냉장육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세철폐시 국내 쇠고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추가협상을 통해 관세를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다소 줄 수 있게 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KASMO 모형을 이용하여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785억 원, 10년차에 9,912억 원, 15년차에 1조 2,354억 원의 감소가 각각 예상되고,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12조 2,2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행 15년차를 기준으로, 4,438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단일품목으로 총 생산감소액의 35.9%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크며, 축산물 전체의 생산감소액 또한 8,193억 원으로 국내 피해규모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한·EU와 한·미국 FTA상의 말 관세양허표

### 1) 한·EU FTA 말 관세양허표

한·EU FTA 하의 말의 관세양허표는 <표 4>와 같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sup>5)</sup>를, 유럽연합의

5)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경우는 유럽연합 통합 상품명 및 부호체계(CN : Combined Nomenclature)<sup>6)</sup>를 사용하여 정하였다.

〈표 4〉 한·EU FTA 말 양허표

대한민국 양허표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	0
0101109000	기타	8	5
0101901010	경주말	8	5
0101901090	기타	8	5
0101909000	기타	8	10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10
0205002000	냉동한 것	27	10
유럽연합 당사자 양허표			
CN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	제1류 산 동물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10	- 번식용의 것		
01011090	-- 말	Free	0
010190	- 기타		
	-- 말		
01019011	--- 도축용의 것	Free	0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6)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C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C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C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유럽연합 당사자 양허표			
CN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9019	--- 기타	11.5	0
01019030	-- 당나귀	7.7	0
01019090	-- 노새와 버새	10.9	0
020500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0020	- 신선 또는 냉장	5.1	0
02050080	- 냉동의 것	5.1	0
0206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주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의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반영한다.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7년 5월 6일 발효 중인 유럽공동체의 공동관세율을 반영한다.

## 2) 한·미국 FTA 말 관세양허표

한·미국 FTA 하의 말의 관세양허표는 <표 5>와 같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sup>7)</sup>를, 미국의 경우는 미합중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sup>8)</sup>를 사용하여 정하였다.

7)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8) 이 양허표상 규정은 일반적으로 HTSUS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TSUS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TSUS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T SU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표 5〉 한·미국 FTA 말 양허표

대한민국 양허표			
HSK 2007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sup>9)</sup>
0101101000	말(농가 사육용의 것에 한한다)	0	D
0101109000	기타	8	D
0101901010	경주말	8	D
0101901090	기타	8	D
0101909000	기타	8	G
020500100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7	G
0205002000	냉동한 것	27	G
미합중국 양허표			
HTS 8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01011000	살아있는 말과 당나귀(순수종의 번식용에 한한다)	0	K
01019010	살아있는 말(순수종의 번식용은 제외한다)	0	K
01019020	살아있는 당나귀(순수종의 번식용에 한한다)	6.8%	D
01019030	노새와 버새(즉시 도살용으로 수입된 것에 한한다)	0	K
01019040	노새와 버새(즉시 도살용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4.6%	A
02050000	말, 당나귀, 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	K

주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미합중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열의 일반관세율을 반영한다.

- 9) ①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② 양허유형 D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③ 양허유형 G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④ 양허유형 K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은 지속적으로 무관세 대우를 받는다.

### Ⅲ.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

#### 1. 말산업의 개념 및 현황

##### 1) 말산업의 개념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sup>10)</sup> 즉, 말의 생산업·사육업·유통업, 말 이용업, 말 조련업·장제업(裝蹄業)·재활승마지도업·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과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약품 또는 향장품의 제조업·판매업,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판매업,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등을 포함한다.<sup>11)</sup> 이러한 말산업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부적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뉘어져 다양한 새로운 사업 분야와 직업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sup>12)</sup>

[그림 1] 말산업의 범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0) 말산업육성법 제2조

11)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12) 영국의 말산업 범위에 대해서는 Eastwood, S., Jensen, Anne-Lise R. and Jordon, A., *Business Management for the Equine Industry*, Blackwell Publishers, 2006, pp.7-8. 참조

## 2) 말산업의 현황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농촌경관 유지와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말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산업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 세계 말 사육두수는 5천 5백만 마리로 경마, 승마, 마술경기, 장애인 재활치료, 트레이닝, 식용 및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말산업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국가의 말산업 현황

구 분	주 요 현 황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920만두</li> <li>▶ 말산업 참여인구 : 460만명(말소유자, 근로자, 서비스제공자 등)</li> <li>▶ 말산업 고용창출 : 140만명(풀타임 근로자 45만명)</li> <li>▶ 고용창출 : 140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1,015억 달러(2005년 GDP 대비 0.81%)</li> </ul>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96만두</li> <li>▶ 말산업에 관심있는 인구 : 500만명(승마인구 240만명)</li> <li>▶ 말산업 고용인구 : 직접 5만명, 간접 10~20만명</li> <li>▶ 고용창출 : 20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34억 파운드(2005년 GDP 대비 0.26%)</li> </ul>
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120만두</li> <li>▶ 승마협회 회원수 17,600명, 등록 승용마 70,000두</li> <li>▶ 말산업 고용인구 : 20만명</li> <li>▶ 고용창출 : 20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63억 달러(1999년 GDP 대비 1.5%)</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90만두</li> <li>▶ 승마장 7,500개, 승마인구 150만명(클럽회원 52만명)</li> <li>▶ 말산업 고용인구 : 11만명</li> <li>▶ 고용인구 : 11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100억 유로(2006년 GDP대비 0.58%)</li> </ul>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100만두</li> <li>▶ 승마장 7,600개, 승마인구 160~170만명(클럽회원 75만명)</li> <li>▶ 말산업 고용인구 : 30만명</li> <li>▶ 고용인구 : 30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50억 유로(2006년 GDP 대비 0.24%)</li> </ul>

구 분	주 요 현 황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 사육두수 : 80,700두</li> <li>▶ 승마장 990개, 승마클럽회원 7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마클럽 이용자는 연간 135만명 이상</li> </ul> </li> <li>▶ 고용인구 : 10만명</li> <li>▶ 경제기여효과 : 86억 달러(2006년 GDP 대비 0.2%)</li> </ul>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로 말산업의 규모는 연간 2조 8,700억 원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말 말사육은 1,700농가에서 28,000마리를 기르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국의 승마장은 293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실내승마장을 보유한 승마장은 24%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말산업은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의 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승마와 연관 산업으로 인한 말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표 7〉 국내 말사육 두수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사육가구수	463	520	637	738	805	860	965	1,142	1,291	1,528	1,742	
사육두수	개량종	5,147	5,747	6,720	7,679	7,372	10,305	8,242	8,180	8,062	8,378	9,901
	재래종	3,016	4,850	5,818	6,582	8,930	8,234	12,245	14,761	16,889	19,503	18,396
	계	8,163	10,597	12,538	14,261	16,302	18,539	20,487	22,941	24,951	27,881	28,297
축산농가증 비율(%)	0.6	0.7	0.8	1.0	0.9	1.0	1.2	1.6	1.6	2.0	2.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한편,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말산업이 가지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적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그리고 향후 전개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토 및 지역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기회(opportunity)요인과 위협(threat)요인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sup>13)</sup>

〈표 8〉 우리나라 말산업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에 대한 친근감과 승마에 대한 요구</li> <li>▶ 승마에 대한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li> <li>▶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li> <li>▶ 심신교육과 전인교육 수단으로 승마에 대한 재인식</li> <li>▶ 심신 재활 치료수단으로 도입과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부족</li> <li>▶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li> <li>▶ 승용마 육성과 사양 및 승마관련 전문인력 부족</li> <li>▶ 승마관련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부족</li> <li>▶ 마필을 위한 전문의 및 치료시설 부족</li> <li>▶ 말산업은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한 미개척분야</li> </ul>
	기회(O)	위협(T)
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육성정책</li> <li>▶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li> <li>▶ 건전하고 건강한 삶 추구하는 시대흐름</li> <li>▶ 잠재시장 증가의 가능성</li> <li>▶ 마유(馬油) 제품의 다양한 분야(의료·약품, 미용 등)로의 판매 가능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의 진입로 인한 경쟁 격화</li> <li>▶ 입시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인한 청소년 참여기회 저조</li> <li>▶ 말산업의 성장과 국가 간 말 교류의 확대에 따른 말 전염병 발생위험 증가</li> </ul>

자료: 강태훈,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9, p.53  
일부 수정

## 2.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

말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 차원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산출규모는 2009년 기준 2조 8,623억 원이며, 부가가치 총액은 2조 842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산업은 약 1만 7,000명 정도의 국민들에게 일자리(고용)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산업의 성장은 직접적으로 관계 깊은 마필관리 관련 부문(사료나 수의 등)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더 나아가 각종 서비스 부문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효과가 파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산업의 육성 및 성장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후생증진으로 연결되어, 이에 대한 공적자금 및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sup>14)</sup>

13) 강태훈, 상계서, p.51.

14) 김재경·김한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말(馬)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농업경제 연구」, 제52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 pp.66-72.

〈표 9〉 말산업의 국민경제상의 위상(2009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생산부문	마주부문	경마부문	승마부문	말산업(합계)
산출	직접산출(A)	43,912	156,249	1,956,710	17,833	2,174,704
	직접산출 (유발효과:B)	35,657	95,012	538,377	18,561	687,607
	산출총액 (산출유발승수(B/A))	79,569 (0.8120)	251,261 (0.6081)	2,495,087 (0.2751)	36,393 (1.0408)	2,862,311 (0.3162)
부가 가치	직접창출 부가가치	25,084	85,258	1,628,329	6,574	1,745,245
	간접창출 부가가치 (유발효과)	14,052	48,500	268,378	7,981	338,912
	부가가치 총액 (총 부가가치 유발승수(C/A))	39,136 (0.8912)	133,759 (0.8561)	1,896,707 (0.9683)	14,555 (0.8162)	2,084,158 (0.9584)
취업 인원 (명)	직접취업인원	371.9	2,103.0	8,610.0	984.0	12,068.9
	간접취업인원 (유발효과)	400.3	1,277.9	7,037.4	213.4	8,929.0
	총 취업인원(D) (총 취업인원 유발승수(D/A)*)	772.1 (17.6)	3,380.9 (21.6)	15,647.4 (8.0)	1,117.6 (62.7)	20,918.0 (9.6)
고용 인원 (명)	직접고용인원	236.9	1,113.0	8,610.0	691.0	10,650.9
	간접고용인원 (유발효과)	221.7	750.2	4,761.9	133.6	5,867.2
	총 고용인원(E) (총 고용인원 유발승수(E/A)*)	458.5 (10.4)	1,863.2 (11.9)	13,371.9 (6.8)	824.6 (46.2)	16,518.1 (7.6)

주: \* 총 취업인원(고용인원) 유발승수는 직접산출 10억 원 당 인원(명)으로 산정  
 자료: 김재경·김한호, 전계자료, p.66.

말산업은 생산·육성·유통·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농업·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인데도, 그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1차~3차 산업)인데도 국민 관심이 낮고, 산업화 초기 단계로 인프라 등 산업 구조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장개방 가속화, 경제성장에 따른 승마수요 증가 등에 맞춰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을 육성시켜 농촌 대체 소득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승마 활성화·연관산업 발전 등 말산업 육성을 통해 말산업의 핵심 동력인 건전 경마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말산업을 풍요로운 농어촌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력산업, 건강사회를 이끌어가는 웰빙(well-being) 산업, 고소득시대에 부응하는 녹색 국민레저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sup>15)</sup>

농림수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르면, 말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2016년까지 말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8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 규모 약 1만명, 연관산업 생산유발 규모 약 8천억 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따를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말산업의 성장 효과

구 분	2012	2016	2020
승마인구(만명)	2.5	5	7
고용인력(만명)	2	3	4
말사육두수(만두)	3	5	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또한, 농어촌 경관과 조화된 승마관광 활성화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중심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즉, 승마관광이 활성화 될 경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으로 인구 유입 증가,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는 말 생산·판매, 관광 등을 통해 새로운 대체 소득 발생하여 부업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을 통해 국세(농특세), 지방세(레저세, 지방교육세), 축산

15)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육성5개년종합계획”, 2012.

발전기금 등 국가 재정기여 확대를 지속시킬 수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경마 매출액을 통해 연간 1조 4,300억 원(지방세 매년 1조 2천억 원, 축산발전기금 2,300억 원 수준)이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 IV. 말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

### 1. 말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FTA를 통한 산업간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열위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즉,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 산업구조조정의 사례로 호주 낙농산업의 경우 개방 이후 보호대책보다는 점진적인 보조금 철폐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이후 호주 정부는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낙농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16)</sup>

본 논문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EU 등과의 FTA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단기피해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제도 등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피해보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말은 다른 가축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인데, 1~2년 키운 국내산 경주마의 경매 낙찰가는 평균 3,330만 원(2008년 기준)으로, 한우 비육우의 평균 거래가격 534만 원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승용마도 조련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천만 원을 넘고 있다. 또한, 말은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돌림병에 대한 염려도 거의 없으며,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 비해

16) 최낙균 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179-180.

탄소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분뇨도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오염도 적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경마중심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사행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승마 역시 이용료가 비싸 특정 계층의 귀족 스포츠로 여겨져 왔다. 또한 사육농가들 입장에서는 말 생산, 육성, 조련, 사양관리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적절한 매뉴얼이 없어 말산업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어 왔다.

따라서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사육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 2. 말산업의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말산업육성법이라는 기본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일례로, 현재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말산업특구<sup>17)</sup>를 지정할 예정인데, 문제는 지정요건<sup>18)</sup>을 충족시킬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이외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륙 자치단체가 특구 지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구 지정요건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특구 지정을 위하여 무리하게 시설 투자만 할 경우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용도별로 다양한 말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말 종축의 국산화와 자급화를 위해 우수 경주마, 승용마 등의 자원 확보 및 육성이 필요하며, 용도별 말 생산에 적합한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기반시설과 수입에 의존하는 양질의 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 감면과 국공유지 사용특례 인정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 말산업특구 지정은 중요하다.

---

17) 동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조세감면, 국유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말산업특구에 관심을 갖고 준비 중에 있다.

18) 정부가 정해놓은 특구 지정 요건은 말 사육 농가는 50가구 이상, 마리 수는 500마리 이상, 말산업 관련 매출 20억 원 이상, 승마장·조련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말산업육성법 제20조

셋째, 말 생산 및 육성 분야의 연구·개발(R&D)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말관련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말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말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자국의 말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넷째, 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말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직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말 관련 직업으로는 경마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장제사, 말 전문수의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 지도사 등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말산업 관련 고등학교와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기고 있고, 관련 자격증 제도<sup>19)</sup>가 시행되고 있어 전문인력 수급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말산업과 레저문화의 조화를 통한 농촌소득 기반 창출

농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관광, 문화, 휴양, 체험형 승마시설을 만들어 소득기반 창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승마시설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규모가 확대될 경우 말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일례로, 미국 켄터키(kentucky)주는 미국 최고의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와 켄터키 말공원(Kentucky Horse Park)<sup>20)</sup>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산업 도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말산업

19) 말산업육성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주요 자격의 종류는 말조련사(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자격), 장제사(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자격), 재활승마지도사(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역량 자격) 등이다.

20) 켄터키 말공원은 부지 417만 6,500㎡(126만 5,600평)에 자리잡고 있으며, 공원을 둘러싼 울타리의 길이만 5만 4천m에 이른다. 두 개의 박물관과 역대 우승 경주마가 있는 명예의 전당, 말 사육장, 교육 테마파크, 말 스포츠센터, 승마코스, 말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특히 세계 말박물관에는 사냥·교통·전쟁·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한 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모형 등 전시물을 비롯해 각종 경마대회 우승트로피와 말 관련 예술품 등이 전시돼 있다.

이 주의 핵심 수입원이 되고 있다.<sup>21)</sup>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말 테마파크인 ‘더마파크(The 馬 Park)’<sup>22)</sup>를 만들어 2008년 11월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의 유명 말공원예 비해 규모나 콘텐츠의 다양성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 및 지역경제의 소득원으로 말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농촌형, 근교형), 다양성(산간, 중산간, 평야, 해안 등) 및 지역 고유문화 등을 고려한 운영형태와 규모별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sup>23)</sup> 그리고 말산업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의 주요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할 필요가 있다.

#### 4. 말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말 수요는 경주마에 편중되어 FTA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마산업과 말고기 산업을 농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말고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육용마를 도입하거나 육성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말고기를 생산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고기의 부분육별 거래와 말 등급 판정 도입이 필요하다. 소의 경우 등급판정에 따라 농가의 수취가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등급별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말고기의 경우는 생체중에 따라 거래가 되고 있어 고품질 말고기 생산을 위한 농가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sup>24)</sup>

21) 미국 농업센서스에 따르면 2005년 켄터키주의 말산업은 10억 달러의 현금수입을 올렸으며, 농업분야 총수입의 25%를 차지했다. 또한 10만개 안팎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 때문에 켄터키주의 말산업은 연간 88억 달러의 경제유발효과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켄터키 말공원은 연간 2억 4천만 달러, 켄터키 더비는 2억 2천만 달러의 경제유발효과를 각각 거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더마파크는 부지 20만㎡에 상설 기마공연장을 비롯해 마장마술 경기장, 승마클럽, 체험승마장, 야외주로(走路) 등을 갖추고 있다.

23) 채성주, “농촌 신소득원으로서 충북 말산업 육성 방향과 과제”, 「충북 FOCUS」, No. 67, 충북발전연구원, 2012, p.19. 일부 수정

24) 김문영, “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산업 육성의 타당성 여부 고찰”, 「동서언론」, 제14집, 동서언론학회, 2011, p.56.

둘째, 말을 활용한 다양한 천연물 신약 및 의료용 물질 소재 생산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임신한 말의 소변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을 추출하여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요법에 사용되는 천연물 신약을 개발 중에 있고, 말에서 생산한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말기름<sup>25)</sup>의 미용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화장품, 비누, 샴푸 등의 천연 소재로도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며, 영양크림 원료나 화상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용 화장품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들 상품에 대한 시장창출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말고기 최대 소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육용마를 개량하고 육성해 소비를 확대해 왔다.<sup>26)</sup> 또한 말기름 제품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현의 말기름 제품 생산회사인 손바유(ソンバユ)는 크림, 비누, 샴푸 등 20여 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연간 25억 엔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sup>27)</sup>

## 5. 수출진흥을 위한 글로벌 산업으로의 육성

우리나라 말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까지 포함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말과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 시행, 국제말산업전시회의 개최, 국제경마대회 참가 등을 통한 우리나라 말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중동아시아의 두바이 월드컵, 유럽의 파리개선문상, 북아메리카의 브리더스컵, 오세아니아의 멜버른컵, 아시아의 재팬컵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경마대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 훈련된 말을 출전시켜 우승할 경우 우리말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알려져서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주용 종마 수입시 부과하는 세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말은

25) 말기름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알파 리놀레산(오메가3)이 63%나 함유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팔미톨레산도 함유되어 있다.

26) 농촌진흥청, “말산업 농촌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농촌진흥일보, 2012, 4, 4.

27) 이종언 외, 전계자료, p.16.

축산법에 정한 소·돼지·닭·오리와 함께 종축개량 동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종축개량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말을 제외한 동물은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말은 생산자인 농민이 10%의 부가세를, 관련 단체는 부가세와 함께 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sup>28)</sup> 참고로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의 국가(지역)에서는 경주용 종마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소비트렌드와 선호도 등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이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 기관의 신설과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말사업자의 말과 말 관련 상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V. 결 론

다수 국가와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무에 따라 이익산업과 피해산업이 구분되어지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EU, 미국과의 FTA로 인해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았다. 향후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의 새로운 축산업으로서 말산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말산업은 말의 생산, 육성, 유통, 소비 등을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산업이 파생될 수 있는 복합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의 제정과 ‘말산업육성종합계획’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의지 등을

28) 씨암말을 수입하는 제주도 육성마 농가의 경우 지난 1991년 이후 1,897두를 수입하면서 4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고가의 씨수말을 수입해 농가에 교배지원사업을 하는 마사회의 경우 2000년 이후 20두를 수입하면서 관세·부가세를 포함해 59억 5,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총 10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농가, ‘종마수입 과정서 41억 허공 속으로’, 제주의 소리, 2010, 10, 14).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TA라는 시장의 기회를 축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인 말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말산업의 육성과제를 도출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축산업의 신성장 산업으로서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산업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법제도 구축과 실현가능성의 제고, 용도별 말 생산기반의 구축, 연구·개발(R&D)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 활용방안 등과 같은 말산업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동 산업의 외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말산업과 레저문화의 조화를 통한 농촌과 지역경제의 소득 기반 창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말을 활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유망수출산업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FTA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 열위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즉, 말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이를 통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말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말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말산업 육성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말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해외 선진국의 경쟁력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으나 금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참 고 문 헌

- 강민수, “FTA 시대 제주특별자치도 말 산업 성공전략”, 「제주발전포럼」, 제 37호, 제주발전연구원, 2011.
-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특구 지정”, 「제주발전포럼」, 제43호, 제주발전연구원, 2012.
- 강태훈,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 타당성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9.
- 김문영, “축산업에 기반을 둔 경마산업 발전방향 -한미 FTA대비 경마산업을 통한 농촌지원 정책방향 연구-”, 「동서언론」, 제10집, 동서언론학회, 2006.
- , “기존 축산업의 대체 산업으로써 말산업 육성의 타당성 여부 고찰”, 「동서언론」, 제14집, 동서언론학회, 2011.
- 김종민 외, “말(馬)산업을 일으키자”, 「정책메모」, 제16호, 강원발전연구원, 2011.
- 김재경·김한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말(馬)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2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
- 농림수산식품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2012.
- 농촌진흥청, “말산업 농촌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농촌진흥일보, 2012, 4,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9개 연구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0.
- 안중호, “한국 말산업 발전 방안”, 「말산업육성방안」 심포지엄, 한국말산업중앙회, 2011a.
- , “말산업의 이해”, 「한국말산업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엄, 한국말산업학회, 2011b.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 ,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 이광남·박명섭, “한·일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분석”, 제22권,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 이종언 외, “새로운 문화 콘텐츠, 말 -떠오르는 레저문화산업-”, 「RDA

- Interrobang」, 제37호, 농촌진흥청, 2011.
- 이천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말산업육성정책”, 「말산업육성방안」 심포지엄, 한국말산업중앙회, 2011.
- 정경수 외, “한우산업에 대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2006.
- 정용화·홍영선, 「관세율표·상품학」, 박영사, 2009.
- 조석진, “한국 축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2012.
- 채성주, “농촌 신소득원으로서 충북 말산업 육성 방향과 과제”, 「충북 FOCUS」, No. 67, 충북발전연구원, 2012.
- 최낙균 외,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Eastwood, S., Jensen, Anne-Lise R. and Jordon, A., *Business Management for the Equine Industry*, Blackwell Publishers, 2006.
- Houghton, B. J., *Horse Business Management*, Blackwell Science, 2001.
- Kelekna, P., *The Horse in Hum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ABSTRACT

### Tasks for Promoting the Horse Industry under FTAs

Lee, Young Soo

Kwon, Soon Koog

This study conducts the horse industry, which shows how country has implemented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in order to cope with the economic shocks that an FTA brought about. Among the FTAs that Korea has made, Korea-EU and Korea-US FTAs have been regard to bring relatively big impact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

The horse industry is a very large and important part of our national and local economies. It is diverse, involving agriculture, business, sport, gaming,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The enactment of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can be a turning point for the recovery of the livestock industry. The Act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expand the horse industry as a driving force of rural growth and contribute to people's leisure lif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the horse industry.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 The Horse Industry,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Act, Horse Industrial Zones